3. 일본문양의 조형적 특징

일본문양의 고향은 중국에 있다고 할만큼 중국의 큰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중국, 일본, 한국문양에서 공통의 소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양의 조형적 표현 방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문양은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조건에 의해 그 형태 자체가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의미가 변하거나 형태가 변모되어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많은 내전과 전쟁을 겪었으며 문양도 이런 환경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사나 귀족계급의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문양이 새겨지게 되었으며 무사들의 무기용품과 귀족들의 장식품에 문양은 그 화려함을 발휘했다. 남성들의 의식주 도구 전반에 문양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므로 문양의 발전양식이 여성중심의 조선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문양의 주체가 남성이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 증거로 가문(家紋)의 양식을 들 수 있다. 가문은 일본문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래의 목적은 성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안(平安)시대부터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가문의 소재와 표현에서 일본문양의 성격을 잘 읽을 수 있다. 가문의 소재는 자연물 이외에 기구 문양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도구나 완구 같은 것을 문양의 소재로 선택한 것인데 일본인의 도구에 대한 철학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소재는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부채, 실타래, 차바퀴, 우산, 화살, 향수 등으로 부채는 펼침으로 해서 형태가 넓어져가고 바람을 일으키므로 상업의 번창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업주의의 표방은 室町시대와 江戶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고전문양을 계승하면서도 신흥의 문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의 독자적 문양이 가장 활발히 탄생한 셈이다. 일본은 江戶시대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상인들의 요구와 상업주의적 정신은 문양을 실용적 도형으로 정착시켰다.

가문이 일반서민에까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室町이후로 성씨를 대신하는 심볼의 형태인 문양은 상업적 기능성을 위해 더욱더 간결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제작되었다. 상인을 중심으로 쓰여진 가문의 패턴은 일본고유의 문양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오늘날 산업디자인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문양이 남성적 성격이 강하게 보여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문화의 기술주의의 표방에 있다. 일본은 室町시대에 지방산업의 진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공예와 민예는 기술 지향적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인은 일찍이 기술을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려놓았으며 공예 기술자는 예기로 문양을 새겼으므로 문양은 기술적. 기교적 표현에 의해 그 완결성을 높이려 했다.

우리의 문양이 상징적 의미 그 자체 큰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세련된 형태미를 즐겼으며 문양 그 자체는 정리된 간결성을 갖고 있지만, 소재에 따라 정교하고, 대담한 문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의 문양사가 이상과 소망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내세의 세계에까지 꿈꾸려는 감성적이고 여성적 취향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문양은 현세적 장식의 문양사로 남성이 문양의 세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의 문양이 나름대로 다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사회구조와 종교 등의 문화적 환경이외에 자연과 풍토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연구범위 상 지리적, 자연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문양의 조형적 특성 즉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우리는 전통문양을 단순히 재현적 묘사의 대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양이 비록 비독립적 조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미의 가치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조형적 요소와 결합하여 미의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호적 의미로 또는 문화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민족과 기질에 적합한 문양을 이해하고, 문화적 가치로써 문양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